

포기하지 않는 사랑

호세아 2:14-23

【인도자를 위한 예화】

카아아이 섬 연구는 1950년대부터 20년 동안 하와이에 거주하는 편부모 가정 어린이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 부모의 정신 질환, 가정 내 폭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연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부 아이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가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자랐고, 둘째는 이들이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받는 것이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 사랑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가까이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끝끝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호세아 2:14-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거듭해서 배신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배신은 하나님께 깊은 아픔과 상실감을 안겨 줍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사이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비유로 사용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과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 다른 이들의 품으로 가 버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으면서 계속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평행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용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는 이 같은 개인적이고 깊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재조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그분의 사랑과 축복 속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백성의 입에서 고백하게 될 것과 제거될 것은 무엇인가요?(16-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 고백하고,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에는 '주인,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그들의 주인이자 남편으로 고백하며 숭배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라는 말 대신 '이쉬'라는 말을 쓰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쉬'는 하와가 아담을 부를 때 사용한 말로 '내 남자, 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남편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을 연상하지 않도록 '이쉬'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바알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관계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움과 정의, 인애, 긍휼 등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혼약을 맺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약

속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혼인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남편이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바알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남편임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려면 어떤 태도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진정한 남편은 '바알'이 아니라 '이쉬'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이쉬'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만이 내 남편임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에서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정한 남편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기 위해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 인애, 긍휼 등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시간과 열정 등을 가장 많이 쏟는 것 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기적인 목표나 물질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타인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와 전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일상을 점검하며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은 그분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2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회복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이스르엘은 북 이스라엘의 지명이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지만(1:4), 그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통해 갈아엎은 새로운 땅에 그들을 심기 위함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로부터 긍휼을 거두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공표했던 선언이 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품으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십니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적용과 나눔 II

택하신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생각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길을 잃지만, 우리를 찾으시고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목적을 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타인에게 내가 받은 긍휼과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분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큰 축복을 줍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인식할 때 생깁니다.